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❶ '비두리 현자 이야기'와 '토끼전'

▶ **조성금 교수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중앙아시아 불교회화 및 동서미술교섭사를 전공한 미술학자다. 성신여대 대학원서 석사를, 동국대 대학원에서 '천상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해 발간한 연구서 〈실크로드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로 2020년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토끼전 원류, 부처님 전생 '비두리 현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흔히 본생경(本生經)이라 부르며, 본생화(本生話)·본생담(本生譚)·전생담(前生譚)이라고도 한다. 어원은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자타카'(Jataka)의 의역으로서 jan(降生, 강생)의 동사가 변하여 명사가 된 것이다. 이 말은 본래 '태어나다', '태어난 그때의 일'이란 뜻이 불교에서 '이승에서 태어나기 전까지의 전생(前生) 이야기'라는 뜻으로 쓰였고,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가리킨다.

본생담은 석존의 탄생보다 1세기쯤 앞선 우파니샤드(Upanisad)시기에 만들어진 윤회전생(輪廻轉生) 사상이 불교와 만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22부 547편에 달하는 이야기가 만들어 졌다. 불자들은 본생담을 통해서 석가모니께서 한 번의 희생으로 그리고 몇 번의 보시로 싯다르타 태자로 태어나 부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현재 알려진 본생담이 547종이므로, 최소 547번의 희생과 보시의 삶을 반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생의 주인공은 귀한 신분만이 아닌 동물·수행자·승려·왕·상인·도둑·거지 등 매우 다양하며, 매번 다른 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있다.

앞으로 연재를 통해 들려드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 접했던 전래동화 혹은 설화와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 동화나 설화로 알고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본생담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림과 경전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설화는 국경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 전달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분화·파생·개조돼 토착화한다. 본생담의 경우 토착화 과정에서 해당 지역 민족의 문화와 사상이 융합돼, 불교적 주제의식과 특징이 옅어지고 유교 사상 혹은 민간의 신앙이 강하게 투영되기도 했다.

처음으로 소개할 본생담은 '별주부전' 혹은 '토끼전', '수궁가' 등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전래동화 그리고 소설, 마당놀이, 판소리, 연극 등 여러 장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토리로서, 아마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전해진 시기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1 김유신(金庾信) 열전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늦어도 642년에는 이미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춘추가 청포(靑布) 3백 포를 고구려 왕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해(先道解)에게 몰래 주었다. 선도해가 음식을 차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무르익자 농담하듯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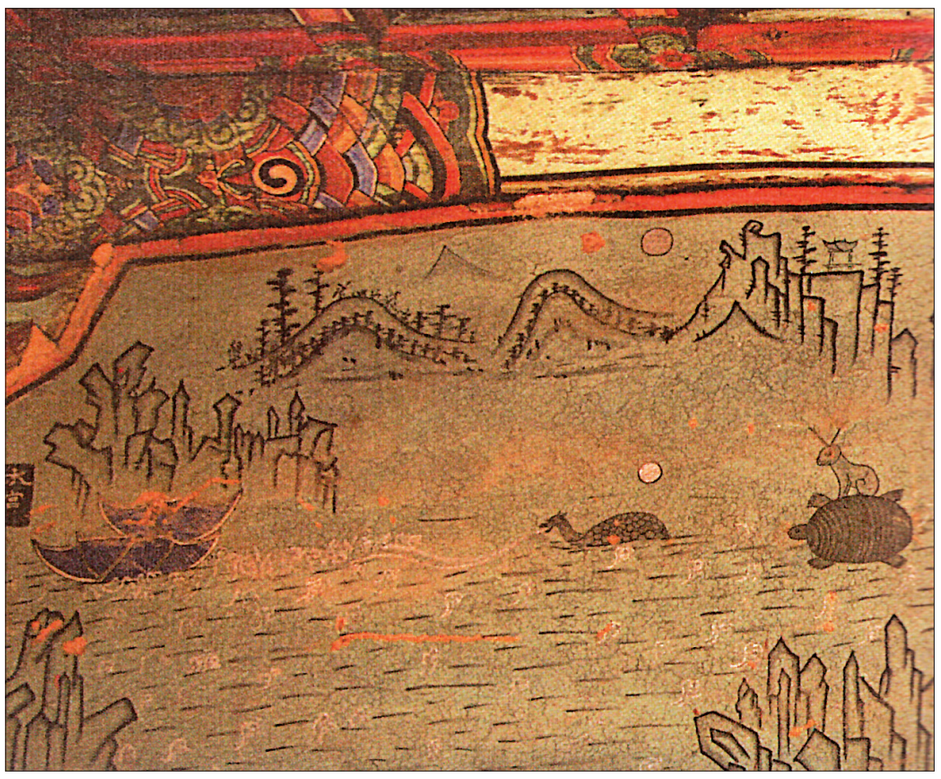
"그대는 또한 일찍이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소?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에 병이 났는데 의원이 '토끼의 간을 얻어 약을 지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소. 하지만 바다 속에는 토끼가 없으니 어쩌하지 못하였소. 그러던 차에 거북이 한 마리가 용왕에게 '제가 능히 그것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라고 아뢰었소. 이윽고 육지에 올라와 토끼를 보고는 '바다 속에 섬이 하나 있는데, 샘은 맑으며 돌은 하얗고 수풀은 무성하고 과일은 맛이 좋으며 추위와 더위는 이르지 못하고 매와 송골매도 침입하지 못한다. 네가 만일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소.

이로 인해 토끼를 등에 업고 2~3리 정도 헤엄쳐 가다가 거북이가 돌아보며 토끼에게 '지금 용왕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모름지기 토끼의 간이 약이 되는 까닭에 수고를 꺼리지 않고 너를 업고 왔을 따름이다'라고 하였소.

그러자 토끼가 말하였소. '아! 나는 신명(神明)의 후예라 능히 오장(五藏)을 꺼내 씻어 넣을 수 있다. 일전에 잠시 마음이 어지러워 마침내 간과 심장을 꺼내 씻어 잠깐 바위 아래에 두었는데, 너의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오느라 간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니 어찌 간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너는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나는 비록 간이 없어도 또한 살 수 있으니 어찌 양자가 서로 좋지 않겠는가' 거북이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가 겨우 해안에 이르렀는데 토끼가 도망치며 풀 속으로 들어가 거북이에게 '어리석구나, 그대여. 어찌 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소. 거북이는 근심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소."



그림①. 아잔타 2굴 벽화인 '비두리 현자 자타카'의 모습. 기원전 1세기 경 조성됐다. '비두리 현자 이야기'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토끼전'의 원류다.



그림②. 통도사 명부전 내벽화 중 '수궁도'의 모습. 1890년에 조성됐다. 여러 시대와 국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토끼전'으로 전승됐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경'
윤회사상, 불교와 만나 탄생
韓 전래동화·설화에도 영향

'토끼전' 전해진 건 삼국시대
〈삼국사기〉서 첫기록 확인돼
원류인 '비두리 현자 전생담'
이미 한역경 통해 민간 전승

위의 〈삼국사기〉의 기록은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동일한 주인공과 사건의 전개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토끼전'과 관련된 전생담은 〈삼국사기〉보다 이른 시기에 한역된 불교경전인 〈육도집경(六度集經)〉, 〈생경(生經)〉,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불설보살본행경(佛說菩薩本行經)〉 등에서 '비두리(比豆梨) 현자 이야기' 혹은 '위두라 현자 본생담'(Vidhurapaṇḍita-Jātaka) 등으로 남아 있다.

〈불설보살본행경〉 하권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배경이 우리나라의 동해 바다가 아닌 바라나국이며, 주인공이 토끼가 아닌 왕을 보좌하는 현자 비두리이고 거북이 대신 야차가 비두리 현자를 바닷속으로 데려가는 등장인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바라나국의 바다에는 용왕 파류니(婆留尼)와 용왕이 사랑하는 용왕의 부인 마나사(魔那斯)가 살고 있었다. 용왕의 부인 마나사는 전생에 금계를 범해서 사납고 추한 용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매우 슬퍼하였는데, 한 시녀가 염부제 바라나국의 현자 비두리는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용왕이 왕비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야차에게 비두리의 마음을 가져오라 명하였다. 야차가 빛나는 마니주(摩尼珠)를 들고 바라나국의 왕을 찾아가 내기를 하여 왕이 이기면 마니주를 얻을 것이고, 야차가 이기면 비두리를 달라고 청하였다. 당연히 야차가 이겨 비두리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는 이유를 묻자 "용왕의 부인이 네가 총명하고 지혜가 제일이며, 사람됨이 자애롭고 어질다는 말을 듣고 네 피와 마음을 얻으려 하여 너를 죽이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두리는 "나의 피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나의 법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의 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용왕의 처소에 이르러 비두리가 용왕과 부인을 위하여 5도(道)와 10선(善)에 관해 설법하자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을 깨우치고 크게 기뻐하였다. 다시 염부제로 돌아가길 바라는 비두리에게 용왕이 곧 전단과 마니주와 여러 가지 묘한 보배를 바쳤고, 그 뒤로 대해의 모든 용들과 야차들에게 악독한 마음이 없어졌고, 죽어서는 다 천상에 태어났다.

위의 '비두리 현자 이야기'가 표현된 이른 사례를 기원전 3세기에 조성된 바르후트 스투파(Bhārhut Stupa)와 기원전 1세기 경 도해된 아잔타 2굴의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잔타 2굴의 벽화는 야차가 바라나국의 국왕에게 마니주와 현자 비두리를 걸고 내기를 청하는 장면으로, 주변에는 국왕은 내기나 도박을 하면 안된다며 만류하는 신하들이 묘사돼 있다.(그림①)

한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와 가장 근접한 경전을 찾는다면 〈육도집경〉인데, 여기에는 토끼 대신 원숭이가 그리고 거북이 대신 자라가 등장을 하며, '간'이라는 동일한 매개체가 서술돼 있다.

'비두리 현자 이야기'의 여러 종류 중에서 어떠한 과정과 선택을 거쳐서 오늘날 '토끼전'으로 토착화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도 모르는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이 부처님의 끝없는 희생과 보시를 담은 이야기에서 왔으며, 그 가르침을 들으며 아이가 성장하고 어른이 된다는 사실은 불법(佛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토끼와 거북이가 조각된 구례 구층암 천불전이나 통도사의 명부전 벽화, 남장사의 극락보전 벽화를 보게 된다면 석존의 전생인 비두리 현자의 지혜를 떠올려 보시길 바란다.(그림②)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